

“캄캄한 바다 밝혀온 저 등대처럼 세상의 작은 빛이 되는 삶 꿈꾸죠”

2018 **드림**
이들이 있어 행복하다

가거도 등대지기 윤진욱씨
외롭지만 희망 잃지 않고 살아
‘등대지기’ 노래 들으며 위로
연장근무 자처하며 4년간 지켜
밤마다 선박 사고없는 해 되길

“외롭고 힘든 자리지만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여력이 되는 한 끝까지 남아 빛을 밝히겠습니다.”

18년간 한결같이 등대 안에서 바다를 지키는 항로표지관리원 윤진욱(44)씨의 새해 포부다.

가거도의 밤바다를 밝히는 길잡이를 자처한 윤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등대에서 항로표지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중국과 근접하고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가거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등대를 맡은 이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큰 보람입니다”

윤씨가 관리하는 가거도 등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3명이다. 소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가거도항로표지관리소는 직원 1명이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한다. 주간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윤진욱 항로표지관리원이 신안군 가거도 등대에서 등명기를 살피고 있다. 등명기에 사용된 메탈할라이드 전구는 촛불 268만7000개를 켜놓은 것과 같은 밝기다.

(가거도 항로표지관리소 제공)

야간근무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항로표지관리원은 한 달 기준 22일간 일하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9일간 쉰다.

등대에서는 생활 자체가 업무의 연속이다. 등대 안에 있는 등명기, 위성항법보정 시스템(DGPS) 등의 장비 관리는 물론 여름에는 등대 주변 제초작업까지도 이들의 몫이다. 윤씨를 비롯한 항로표지관리원들은 등대 인근 숙소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윤씨는 “등대에서 50m 떨어진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출근을 하면 사무실에서 이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항로표지관리원이라고 하면 등대 안에서 직접 등명기(등빛을 밝히는 등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등명기에는 타이머가 있어 자동으로 일몰과 일출시간이 계산돼 자동으로 등대가 켜지고 꺼진다”고 설명했다.

가거도 등대에 설치된 회전식 등명기(KRB-750)는 15초 간격으로 깜박인다.

이때 가거도 등대의 불빛은 등대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등명기에 사용된 메탈할라이드 전구는 광도 268만7000cd(칸델라·광원의 밝기를 나타

내는 용어)다.

일부 항로표지관리원은 대한민국 최남서단 있는 가거도 등대 근무를 꺼려하기도 하지만, 윤씨의 경우 지난 2015년 2년간의 연장 근무를 자처하는 등 4년간 가거도 등대를 지키고 있다.

“연장근무를 자원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지원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가히 살 만한 섬’이라는 뜻으로 불린 가거도(巨島)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매료돼 나도 모르게 연장한 것 같습니다.”

18년간 전남의 여러 섬에서 항로표지관리원으로 근무한 베테랑인 윤씨에게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만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엔 가족이 함께 항로표지관리소 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지낸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

외롭게 힘들 때마다 윤씨에게 힘이 되는 것은 등대지기 노래다.

그는 “‘알어붙은 달 그림자/물결 위에 차고/한겨울의 거센 파도/모으는 작은 섬/생각하라 저 등대~’란 내용을 담은 등대지기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윤씨는 새해를 맞아 작은 바람도 내놨다. 그는 “가거도 등대가 캄캄한 바다를 밝히듯 어려울 때 일수록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소망이 있다면 등대빛을 의지한 선박들이 아무런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이달 초 4년간 정들었던 가거도를 떠나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등대로 옮겨 2년간 근무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영화 ‘1987’의 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품으로”...국민청원 시작

영화 ‘1987’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와 박 열사의 모교인 해광고 동문회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청원 운동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열사가 물고문 등 가혹 행위로 숨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은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청 인권센터는 4층에 있는 박종철 기념 전시장과 5층 조사실 등 일부 공간만 시민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제한되기에는 그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크다”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전시·교육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 주체가 될 때, 박종철 열사도 비로소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박종철 열사 31주기를 맞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추모 행사와 박종철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20년 맡은 업무 바뀐 직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직원이었다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하다 갑자기

주·야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조립팀으로 전보됐다. A씨는 애초 야근을 할 수 있는 다른 팀에 지원했으나, 자리가 없어 희망하지 않은 교대 근무 조립팀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근무가 바뀐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종종 호소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A씨는 야간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해 잠들었다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네번째 헌법재판서도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네 번째 헌법재판에서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99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주간에 프레스 패널 제작 업무 등을 하다 갑자기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술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사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여 현재 치 의결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원룸 빌려 제자들 불법과의 고교 영어교사 ‘딱 걸렸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제자들에게 불법과

외를 한 혐의로 해임요구를 받는 등 망신살.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에게 영어과외를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원룸 빌려 제자들 불법과의 고교 영어교사 ‘딱 걸렸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제자들에게 불법과

외를 한 혐의로 해임요구를 받는 등 망신살.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에게 영어과외를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도내 사립고 A교사에 대해 중징계인 해

화재 참사 3남매 어머니 구속...학대 흔적은 없어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 추정

장례없이 화장...오늘 영결식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 발생시켜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일 이불에 담뱃불을 꺼 불이나게 하는 등 삼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경찰이 청구한 정모(여·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31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 거실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 불이 나게 한 혐의다. 이 화재로 큰아들(4), 작은 아들(2), 막내딸(15개월) 등 삼남매가 질식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의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 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정씨는 흐느껴 울며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삼남매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는 ‘화재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소견이 나왔으며 특별한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삼남매의 유족은 3일 장례 없이 삼남매의 시신을 화장하고 간소한 영결식만 임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진모 정씨의 진술에 따라 만취한 상태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방화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삼남매 독극물 검사, 화재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과 화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또 방화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정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